

68kg 훌쩍이·130kg 튼튼이 “우리는 단짝”

KIA 루키 박찬호·박진두 내년 시즌 1군 활약 각오

박찬호

수비·주루 센스 갖춰
집중력 높여 실책 줄이고
공격적으로 타격 임할 것



‘훌쩍이와 튼튼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콤비다.

KIA 타이거즈의 고졸 2년차 박찬호는 팀의 최중량 선수다. 시즌에 63kg까지 빠졌던 박찬호는 68kg까지 몸무게를 불렀다. 130kg에 육박했던 박진두의 몸무게는 5kg 정도 줄었다. 늘고, 줄었다고 해도 거의 두 배 차이이다. 여기에 박진두의 허벅지 둘레는 박찬호의 허리 사이즈와 맞먹는 29인치다.

‘극과 극’의 두 사람은 야구 스타일도 다르다. 박찬호는 수비 재능을 가진 유망주, 박진두는 힘 하나로는 행님들에게도 뒤



박진두

힘은 누구에게도 안뒤져
선물받은 박병호 방망이로
열심히 치고 수비도 신경



지 않은 공격형 선수다. 그만큼 고민도 반대로 다르다. 박찬호의 소원은 “방망이를 잘 치고 싶어요”이고, 박진두의 마음은 “수비를 잘하고 싶어요”이다.

“둘이 합쳐 놓으면 슈퍼스타가 되지 않을까요?”라는 박찬호의 이야기처럼 정말 다른 두 사람이지만 꿈은 하나다. 1군에서 함께 야구를 하는 것이 두 친구의 바람이다.

올 시즌 안치홍-김선빈의 공백 속에서 기회를 얻은 박찬호는 센스있는 수비 실력을 보여줬지만 한참 부족했던 타격에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 ‘무휴일’ 스케줄을 소화했다.

박찬호는 “열심히 했다. 나에게 맞는 타격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찾아서 했다. 타격이 너무 어렵지만 무조건 잘 쳐야 한다. 코치님들이 주루 센스가 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뭐라도 해보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잘 치는 것밖에 없었다. 투수들이 나를 상대하면 쉽게 던지려고 한다.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데 나도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다보면 수싸움도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수비형’ 박찬호라고 하지만 수비에서도 아쉬움은 남는다.

박찬호는 “수비는 자신 있지만 실책이 많았다. 집중력 떨어질 때 실수가 많이 했다. 차분하게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더하겠다”며 “진두와 처음 캠프에서 같이 훈련을 했다. 내년 시즌에도 1군에서 꼭 같이 운동을 하고, 뛰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겨울에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돌아가겠다”고 웃었다.

좌타자 박진두는 남다른 하드웨어로 눈길을 끄는 선수다. 고교 시절부터 따로 옷을 제작해 입을 정도로 박진두는 남다른 체격을 자랑한다. 올 시즌을 끝으로 최희섭이 은퇴를 하면서 KIA의 좌타 거포 자

리가 공석이 됐다. 힘으로는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자리. 올 시즌 1군 무대는 밟지 못했지만 1군에 합류해 훈련을 하기도 했다. 김기태 감독이 직접 박병호의 방망이를 구해 선물해주기도 했다. 문제는 수비다.

박진두는 “운동장에 나가서는 즐겁게 하자는 목표로 마무리 캠프를 지냈다. 파워와 공을 맞는 것은 자신 있는데 수비가 많이 부족하다. 주변에서 (수비를)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안 다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내년 시즌 1군에 가도록 하겠다. 꼭 붙어 있지는 못하더라도 1군을 느끼고 경험을 쌓고 싶다”고 언급했다.

친구 박찬호가 있어 더 기대되는 내년 시즌이다.

박진두는 “입단 동기에서 고졸이 4명인데 군대를 가서 현재 남아있는 게 찬호나 나 두 사람이다. 전혀 다른 캐릭터의 친구라서 재미있고 보실 것 같다. 둘 밖에 없으니 항상 붙어 다니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16시즌을 그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한국색채대상’ 대상 수상

KIA 타이거즈의 안방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공간 마케팅 프로젝트가 ‘2015 한국색채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한국색채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색채학회가 도시 주거환경, 건축인테리어, 제품, 패션 등 8개 분야에서 우수한 컬러 마케팅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시상식은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의 의뢰로 컨설팅과 시공을 맡은 대행사 ‘이노션’이 상을 받는다.

챔피언스필드는 구장의 내외부 색채 계획을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KIA 구단의 컬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색상을 도출, 관람객과 선수 특성에 맞춰 단위공간별로 색채를 적용해 공간의 위계를 정립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KIA는 올 초 ‘야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구단’이라는 비전(Team 2020)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2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최고의 경기력 실현’과 ‘팬 행복 구현’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챔피언스 필드에 65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최민정 “평창 질주 지켜보라”

월드컵 1~4차 대회

개인 금 ‘10개 합작’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심석희(18·세화여고)와 최민정(17·서현고)이 78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빛 환희’를 향한 무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심석희와 최민정은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막을 내린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오른 뒤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국 남녀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차지했고, 심석희와 최민정은 금메달을 모두 책임졌다. 두 선수가

이번 시즌 치러진 4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목에 건 금메달 개수는 개인종목과 계주를 합쳐 총 18개에 이른다. 심석희는 계주를 뺀 개인 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을 수확했고, 대표팀 ‘1년 후배’ 최민정은 6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무엇보다 대표팀 2년차를 맞은 최민정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최민정은 이번 월드컵 시리즈에서 8차례 개인 종목에 출전해 6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은메달도 1개를 따냈다.

최민정은 “금메달만 노렸다면 저의 장기간 장거리 위주로만 나갔겠지만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는 약점이었던 단거리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최민정은 한국 선수들의 취약



최민정

종목으로 손꼽히는 500m 종목에 두 차례 출전해 금메달 1개를 수확했다.

그는 “성적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제무대 경험이 부족해 경기를 끌어가는 능력이 조금 미숙했다. 월드컵 시리즈에서는 이런 경험을 쌓는 과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며 “목표는 큰 대회(올림픽)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남은 두 차례 월드컵 대회에서는 미흡함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표팀 선배인 심석희에 대해선 “확실히 석희 언니와 함께하면서 서로 도와주며 발전하고 있다. 작년보다 성적이 좋아진 것도 모두 석희 언니 덕분”이라고 웃음을 지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도 최민정과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심석희